

### 포도나무의 땅

5/27 월요일

#### 아침의 누림

##### 신 8:8

8 그 땅은 밀과 보리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와 석류가 있는 땅이며, 올리브나무와 그 기름과 꿀이 있는 땅입니다.

##### 삿 9:13

13 그러나 포도나무는 이렇게 대답하였소. ‘나더러 하나님과 사람에게 힘을 복돋아 주는 새 포도주를 내는 일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건들거리란 말이오?’

##### 시 104:14-15

14 가축을 위하여 풀을 자라게 하시고 사람을 위하여 푸성귀를 자라게 하시어 사람이 땅에서 양식을 거두게 하시니

15 이는 사람 마음을 즐겁게 하는 포도주와 얼굴을 빛나게 하는 기름과 사람 마음에 힘을 복돋우는 떡이라네.

##### 요 15:1-3, 6-8

1 “나는 참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입니다.

2 내 안에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마다 아버지께서 잘라 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마다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깨끗이 손질하십니다.

3 내가 여러분에게 일러 준 말로 여러분은 이미 깨끗해졌으니,

6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던져져 말라 버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태웁니다.

7 여러분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여러분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8 여러분이 열매를 많이 맺는 이것으로 내 아버지는 영광스럽게 되시고, 여러분은 내 제자가 될 것입니다.

---

이제 나무에 관한 것을 보자. 첫 번째 나무는 포도나무이다. 포도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 어떤 의미에서 포도나무는 희생하시는 그리스도, 곧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신 그리스도를 묘사한다. 그러나 이것이 중점은 아니다. 주된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힘을 복돋아 주는 새 포도주를 산출하셨다는 점이다(삿 9:13).(만유를포함한그리스도,개정 2판,5장,85쪽)

포도나무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힘을 복돋아 주는 새 포도주를 산출하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시어 십자가에서 ‘짓눌리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마 9:17).(삿 9:12 각주 1)

#### 오늘의 읽을 말씀

여러분은 이러한 그리스도를 체험했는가? 우리 중 대부분이 이러한 체험을 조금씩은 가지고 있을 것이라 믿는다. 그러나 아마도 우리는 그것에 그다지 많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을 것이다. 때때로 주님의 주권 아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님을 접촉한다면, 바로 그때 우리는 포도주를 산출하는 포도나무이신 주님을 체험한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힘을 복돋아 주시는 분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한다. 이러한 체험에 의해 우리는 포도나무가 된다. 즉 사람과 하나님 모두에게 힘을 복돋아 주는 무언가를 산출하는 생산자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체험이 있을 것이다. 모든 상황에서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그리스도의 여러 방면이 있다. 그리스도는 참으로 풍성하시다.

주님은 밀알이시고 보리떡이실 뿐 아니라 모든 나무이시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 기쁨을 산출하는 나무이시다. 모든 형제자매들이 여러분을 기뻐한다면, 여러분은 어느 정도 이런 방면의 그리스도를 체험한 것이다. 여러분은 포도주 생산자이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희생하는 어린양이신 그리스도는 여러분 안에 사시면서 여러분에게 활력을 주셔서, 여러분이 다른 이들을 위해 여러분 자신을 희생하여 그들에게 힘을 복돋아주도록 하신다.

여러 해 전에 내가 대만의 타이베이에 있었을 때, 많은 형제자매들이 영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 우리에게 와서 함께 머물러 있었다. 그들 중 한 자매는 항상 원망하며 불평을 늘어놓았다. 목욕을 할 때는 물이 충분히 따뜻하지 않다고 불평하고, 식사를 할 때는 음식이 너무나 식었다고 불평했다. 그녀는 하루 종일 “이건 왜 이렇지?”, “저건 왜 저렇지?”라고 불평을 늘어놓았다. ... 그녀와 함께할 때 아무도 기쁘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히 그 자매가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희생하시는 그리스도를 자신의 상황에 적용하는 법을 이전에 한 번도 배우지 못했다. 그녀 자신도 행복하지 못했고, 따라서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해 주지 못했다. 그 자매에게는 포도주가 부족했던 것이다. 그 자매는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포도주를 생산하려고 자신을 희생하신, 포도주 생산자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한 적이 없었다.

여러분이 이 방면의 그리스도를 체험한다면, 마실 포도주를 많이 갖게 될 것이며 그 포도주로 취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제정신을 잃을 것이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취하고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주님, 저는 참으로 행복합니다.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저는 이기주의가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그것은

제게는 다른 나라 말입니다. 저는 날마다 그리스도라는 포도주를 마시고 있습니다.”(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 개정 2 판, 5 장, 86-87 쪽)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는 참포도나무이시다. 요한복음 15 장 1 절에서 주 예수님은 “나는 참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십니다.”라고 말씀하셨다. 참포도나무이신 아들 그리스도와 그의 가지들인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경륜 곧 그분의 신성한 분배 안에 있는 삼일 하나님의 유기체로서, 그분의 풍성으로 자라며 신성한 생명을 표현한다. 삼일 하나님의 유기체인 이 포도나무는 단체적이며 우주적이다.(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18 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 - 복음서들과 사도행전, 메시지 286, 121 쪽)

추가로 읽을 말씀: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 개정 2 판, 5 장

5/28 화요일

아침의 누림

롬 12:1

1 그러므로 형제님들, 내가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권유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거룩하고 살아 있는 희생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합리적인 봉사입니다.

엢 5:2

2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시어, 달콤한 향기가 나는 예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 안에서 행하십시오.

고후 1:24

24 우리는 여러분의 믿음을 지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쁨을 위하여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서 있기 때문입니다.

빌 3:1

1 마지막으로, 나의 형제님들,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에게 같은 말을 써 보내는 것이 나에게는 귀찮은 일이 아니며, 여러분에게도 안전한 것입니다.

빌 4:4

4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요 15:11

11 내가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말한 것은 내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게 하고, 여러분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행 5:41

41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모욕당하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여겨진 것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

행 13:52

52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였다.

---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이타적인 사람이다. 가장 이기적인 사람은 언제나 가장 비참하다. ... 우리에게는 희생할 힘이 없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이 타고난 생명, 이기적인 생명이기 때문이다.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희생하는 생명이다. 여러분이 이러한 그리스도를 접촉하고 그분의 희생하는 생명을 체험한다면, 그분은 여러분에게 활력을 주시고 여러분을 강화하시으로써 하나님과 다른 이들을 위해 희생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고, 행복으로 취할 것이다. 이것이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이다. 이러한 체험에 의해,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포도나무가 될 것이다. 여러분을 접촉하는 모든 사람이 여러분으로 인해 기뻐할

것이고, 여러분은 하나님께 힘을 북돋아 드릴 것이다.

포도주가 되려면 포도가 짓눌려야 한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여러분은 짓눌려야 한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서 보리 곧 여러분 안에 계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시라는 것과, 그분께서 모든 상황에 넉넉히 대처하신다는 것을 알고 기뻐한다. ... 너무 쉽게 “할렐루야!”라고 외치지 말라. 왜냐하면 보리 다음에는 즉시 포도나무가 있기 때문이다. 포도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힘을 북돋아 주기 위해 짓눌려야 한다. ... 여러분은 주님의 집에서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무언가를 산출하기 위해 짓눌리고 부서져야 한다. ... 밀과 보리와 포도주가 ...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여러 방면을 깨닫고 매일의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를 적용하는 길이다.(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 개정 2 판, 5 장, 87-88 쪽)

오늘의 읽을 말씀

포도나무의 많은 가지들인 그리스도의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지체들로서, 신성한 분배 안에서 삼일 하나님의 유기체를 형성한다. 요한복음 15 장 5 절에서 주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여러분은 가지들입니다.”라고 선포하셨다. 그러한 선포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믿는 이들이 한 나무라는 것을 함축한다. 그리스도와 믿는 이들, 포도나무와 가지들은 신성한 분배 안에서 삼일 하나님의 유기체를 형성한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5 장에 있는 포도나무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가지들인 믿는 이들로 구성된 우주적인 포도나무이다. 바로 이러한 포도나무, 이러한 유기체 안에 삼일 하나님께서 사시고 그분 자신을 표현하시며 최대한으로 그분 자신을 분배하신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분께서 우리 안으로 번어 나오셨다. ... 그리스도의 번어

나오심이 우리를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의 가지들로 만들었다. 이제 우리는 가지들로서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채워지는데, 왜냐하면 포도나무의 가지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충만하다는 느낌이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여러분은 가지들입니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강하게 아멘이라고 말해야 한다. 다만 “할렐루야, 저는 가지입니다!”라고 계속 말하라. 포도나무의 가지들인 우리는 그리스도로 채워질 것이다.

포도나무 외에는 그 어떤 나무도 믿는 이들과 그리스도 사이의 살아 있는 관계를 적절히 예시할 수 없다. 포도나무는 사실상 몸통이 없다는 점에서 보통의 나무들과 구별된다. 포도나무의 가지들을 쳐 낸다면 실지로 아무것도 남지 않고 뿌리만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여러분은 가지들입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것이다. 포도나무는 가지들에게 모든 것이다. 포도나무 안에 있는 모든 것은 가지들 안에 있다. 이것은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께서 가지들인 우리에게 큰 누림이심을 가리킨다. 포도나무로부터, 포도나무를 통해 우리는 가지들로서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얻는다. 믿는 이들로서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들이며, 포도나무를 표현하는 것 외에는 아무 용도가 없다. 포도나무의 온 존재와 포도나무가 가진 모든 것은 가지들을 통해 표현된다. 개인적으로 가지들은 거듭난 이들이다. 단체적으로 가지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이다. 가지들, 곧 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이들은 열매 맺음을 통해, 아버지와 함께하시는 아들을 표현하기 위해 있다.(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18 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 - 복음서들과 사도행전, 메시지 286, 122-124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18 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 - 복음서들과 사도행전, 메시지 286

5/29 수요일

아침의 누림

요 15:4-5

4 내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나도 여러분 안에 거하겠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도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5 나는 포도나무요, 여러분은 가지들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떠나서는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 1:29

29 이튿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십시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양이십니다.

요 20:22

22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 그들 안으로 숨을 불어 넣으시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으십시오.

고전 15:45

45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첫 사람 아담은 산 혼이 되었지만,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고전 6:17

17 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주님과 한 영입니다.

빌 4:13

13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고후 5:13

13 우리가 미쳤다면 하나님께 미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다면 여러분을 위하여 온전한 것입니다.

---

포도나무의 가지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포도나무 안에 거해야 한다. 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나도 여러분 안에 거하겠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도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여러분은 가지들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떠나서는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요 15:4-5) 가지들이 포도나무 안에 거할 때에만 포도나무가 가지들에게 모든 것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주님은 포도나무이신 그분 자신과 가지들인 우리에게 관해 “내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나도 여러분 안에 거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다. 우리의 삶과 누림은 포도나무 안에 거하는 것이다. 가지들로서 우리의 운명은 포도나무 안에 머무는 것이다.(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18 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 - 복음서들과 사도행전, 메시지 286, 124-125 쪽)

오늘의 읽을 말씀

포도나무를 떠나서 가지들인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포도나무의 가지는 포도나무를 떠나면 마르고 죽을 것이므로 혼자 스스로 살 수 없다. ... 우리의 존재,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하는 것은 반드시 주님 안에 있어야 하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 의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중대한 문제이다. 열매 맺음은 거하는 것에 달려 있다. ...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조건이다. 그러므로 주님은 “내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나도 여러분 안에 거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분께서 거하시는 것은 우리가 거하는 것에 달려 있다. 이러한 상호적인 거함이 열매를 산출한다.

참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는 생명나무(창 2:9)처럼 생명이 충만한 유기체이다.

요한복음 15장 2절부터 8절까지에서 우리는 포도나무 안에 있는 가지들이 열매를 맺음으로 신성한 분배 안에서 아버지의 생명의 풍성을 표현하기 위해 있다는 것을 본다. 그리스도 안의 믿는 이들은 우주 안의 참포도나무이신 그분 안으로 접붙여진 그분의 많은 가지들인데, 이 가지들은 그분을 확산시켜 그분을 확대함으로 많은 열매를 맺어, 삼일 하나님의 유기체로서 그분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포도나무가 포도송이들을 맺을 때 신성한 생명의 풍성이 표현된다. 아버지는 신성한 생명이시므로, 이러한 표현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다(요 15:8). ... 열매가 없으면 포도나무의 본질과 실질과 생명은 감추어지고 숨겨지고 갇혀 있게 된다. 그러나 포도나무의 속생명의 풍성은 열매 송이들로 표현된다. 이렇게 속생명을 표현하는 것이 포도나무 안에서부터 신성한 실질을 해방하는 것이다. 매일 우리는 열매를 맺는 생활을 해야 하며,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한다. 우리가 열매를 맺음으로 신성한 생명을 더 많이 표현할수록 아버지는 더 영광스럽게 되신다.

열매를 맺는 것은 또한 속생명의 풍성이 넘쳐흐르는 것이다.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의 속생명이 넘쳐흐르는 문제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든 것으로 계속 누려야 한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속생명의 풍성함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속생명이 풍성할 때 하나의 흐름이 생겨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달하고 그들의 삶 속으로 침투해 들어갈 것이다. 이러한 흐름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열매 맺음은 속생명이 나타난 것이다. 포도나무의 속생명은 아버지의 온 존재와 아버지께서 소유하신 모든 것의 풍성이다. 이것은 포도나무의 열매 맺음에 의해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포도나무의 열매 맺음은 아들 안에 계신 아버지를 표현하는 것이다.

아버지는 포도나무의 근원이시고, 아들은 포도나무이시며, 그 영은 포도나무의 생명 즙이다. 이렇게 위대한 포도나무는 삼일 하나님의 유기체이다. 아버지의 온 존재가 이 유기체 안에 있고, 삼일성의 둘째인 포도나무 안에 체현된다. 포도나무 속에는 그 영의 생명 흐름이 순환하고 있다. 그 영께서 포도나무와 그 가지들을 유지하시기 위해 아버지의 풍성을 나르신다. 우리는 삼일 하나님의 유기체인 이 포도나무 안으로 접붙여졌다.(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18 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 - 복음서들과 사도행전, 메시지 286, 125-127, 129-131, 133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18 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 - 복음서들과 사도행전, 메시지 286*

## 5/30 목요일

### 아침의 누림

#### 출 29:40-41

40 어린양 한 마리를 바칠 때에 고운 가루 십분의 일 에바와 짙어 짙 기름 사분의 일 힌을 섞은 것을 바치고, 포도주 사분의 일 힌을 전제물로 바쳐라.

41 어스름한 저녁에 다른 어린양을 바칠 때에도,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물과 전제물을 함께 바쳐라. 이것은 여호와를 만족시키는 향기 곧 여호와에게 바치는 화제물이다.

#### 빌 2:17

17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의 희생 제물과 믿음의 봉사 위에 내가 전제물로 부어지더라도, 나는 기뻐하며,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합니다.

#### 민 15:1-10 (4-10)

-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 2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주어 살게 할 땅에 너희가 들어가서,
- 3 여호와에게 화제물을 바칠 때, 곧 특별한 서원을 하려고 혹은 자원 제물로 바치려고 혹은 정해진 명절에 바치려고 소 떼나 양 떼 가운데서 골라 여호와를 만족시키는 향기가 되도록 번제물이나 희생 제물을 바칠 때,
- 4 여호와에게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고운 가루 십분의 일 에바에 기름 사분의 일 힌을 섞은 것을 소제물로 바쳐야 한다.
- 5 너희가 바치는 번제물이나 희생 제물이 어린양 한 마리이면 너희가 준비해야 할 전제물은 포도주 사분의 일 힌이다.
- 6 혹은 숫양 한 마리이면 고운 가루 십분의 일 에바에 기름 삼분의 일 힌을 섞은 소제물을 준비해야 하고,
- 7 포도주 삼분의 일 힌을 전제물로 바쳐서 여호와를 만족시키는 향기가 되게 해야 한다.

8 너희가 특별한 서원을 하거나 여호와에게 화목제물을 바치려고 번제물이나 희생 제물로 소를 준비할 때에는,  
 9 그 소와 함께 고운 가루 십분의 삼 에바에 기름 반 힌을 섞은 소제물을 바치고,  
 10 거기에다 포도주 반 힌을 전제물로 바쳐서 여호와를 만족시키는 향기인 화제물이 되게 해야 한다.

---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은 마시신다. 나는 “하나님은 마시신다”라는 제목의 복음지가 필요하다고 계속 생각해 왔다. 출애굽기 29 장 40 절과 41 절은 전제물에 대해서 말한다. 이 전제물은 제사장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전제물이 하나님을 위하여 부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마시신다고 말할 수 있다. ... 출애굽기 29 장을 볼 때 우리는 음식을 하나님께 드릴 뿐 아니라 그분께 마실 것도 드려야 한다. 우리는 그분께서 마시실 수 있도록 전제물을 부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음식뿐 아니라 전제물인 포도주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출애굽기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39, 1562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전제물인 포도주는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것이었다. 전제물은 하나님께서 마시실 수 있도록 부어졌다. ... 전제물은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하나님 앞에 참포도주로 쏟아부어진 분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존재를 하나님께 부으셨다. 이사야서 53 장 12 절은 “이는 그가 자기 생명을 쏟아 죽음에 이르게 하고” 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하나님께 부어진 하늘에 속한, 영적인 포도주이시다. 더 나아가 전제물은 그리스도 자신의 예표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누림과 만족을 위해

쏟아부어질 때까지, 하늘에 속한 포도주이신 그분 자신으로 우리를 적시시는 그리스도의 예표이다.

히브리서 10 장 1 절부터 12 절까지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제물의 성취이심을 보여준다.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7, 9 절). 즉, 그분은 예표였던 희생 제물들과 예물들을 유일한 희생 제물과 예물이신 인성을 입으신 그분 자신으로 대치하시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오신 것이었다. 이 유일한 제물이신 그리스도는 번제물, 소제물, 화목제물, 속죄제물, 속건제물, 요제물, 거제물, 전제물의 실재이시다. 그리스도는 죽으심으로써 제물들에 대한 모든 예표를 이루는 제물로서 그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셨다.(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3 권, 그리스도, 메시지 43, 137-138 쪽)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다루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관련되어 있고, 이는 또한 2 장 17 절에 언급된 전제물에도 해당한다.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체험이 우리가 전제물로 조성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 그리스도를 최고도로 체험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은 정도까지 체험할 때 우리는 전제물이 될 것이다.

전제물은 레위기 1 장부터 7 장까지에 계시된 기본 제물들에 더해지는 것이었다 (민 15:1-10, 28:7-10). 그 기본 제물들은 그리스도의 여러 방면을 예표한다. 전제물은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누린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하늘에 속한 포도주이신 그리스도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채우실 뿐 아니라, 심지어 그 사람을 하나님께 드러지는 포도주가 되게 하신다. 사도 바울은 이런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누림으로써 그런 전제물이 되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피를 흘림으로써, 믿는 이들의 믿음 위에

하나님께 드러지는 희생 제물로 부어질 수 있었다.

민수기 15 장 1 절부터 10 절까지와 28 장 7 절부터 10 절까지를 읽어 본다면, 전제물이 기본 제물들에 더해지는 것임을 볼 것이다. 기본 제물들 중의 하나가 전제물 없이 드러진다면, 이것은 기본 제물을 드리는 것에 어떤 부족이 있음을 가리킨다. ... 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타고난 조성에 의해서는 전제물이 될 수 없다. 오히려 그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채우시고 적시시고 침투하실 정도까지 그리스도를 누려야 한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누림을 위한 하늘에 속한 포도주이시다. 우리가 그분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여 누릴 때, 그분으로 채워지고 철저하게 그분으로 적셔질 것이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들 위에 전제물로 부어지는 포도주가 될 것이다.(빌립보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4, 130-131 쪽)

추가로 읽을 말씀: 빌립보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4

5/31 금요일
----------

**아침의 누림**

**창 35:14**

14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운 다음,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

**마 9:17**

17 또한 그 누구도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습니다. 만약 넣게 되면, 가죽 부대가 터져 포도주가 쏟아지고 가죽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다 보존됩니다.”

**창 35:15**

15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말씀하시던 그곳의 이름을 베넬이라고 하였다.

**사 53:12**

12 그러기에 나는 위대한 이와 함께 그에게 몫을 나누어 주게 되고 그는 강한 이와 함께 전리품을 나누게 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생명을 쏟아 죽음에 이르게 하고 범죄자들과 함께 헤아려졌으나 홀로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며 범죄자들을 위해 중보기도 한 까닭이라.”

**고후 12:15**

15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은 나의 소유물을 더더욱 기쁘게 소비하고, 나 자신까지도 다 소비할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더 많이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아야 되겠습니까?

**시 22:14**

14 저는 물처럼 쏟아졌고 제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제 마음은 밀랍같이 되어 제 안에서 녹아내렸습니다.

**요 10:11**

11 나는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지만,

----

야곱은 베넬에서 기동을 두 번 세웠다(창 28:18, 35:14). 처음에 그는 그 기동 위에 전제물을 붓지 않았다. 그는 단지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 처음에 야곱이 기동 위에 포도주가 아니라 기름을 부은 이유는, 성경에서 기름은 우리 편에는 그리 많은 체험이 요구되지 않지만 포도주는 우리의 체험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야곱이 처음 베넬에 갔을 때 ... 그는 젊었고 빼앗는 사람이었으며, 그에게는 주님께 부어 드릴 조금의 포도주도 없었다. 그래서 창세기 28 장에서 그는 전제물을 부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십 년 뒤, 야곱은 주님께 의해 만져졌고 다소

변화된 후에 베넬로 돌아왔다. 야곱은 약간의 체험을 얻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주님께 드릴 전제물로서 기동 위에 부을 포도주가 있었다.

누군가가 제물들의 실재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한다면, 그는 ... 결국 그리스도로 총만하고 적셔진 사람이 될 것이다. 그를 적시신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의 포도주가 되실 것이다. ... 그는 이 포도주로 적셔질 것이고 사실상 그 포도주와 하나가 될 것이다.(창세기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89, 1203, 1205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를 체험한다면, 결국 우리가 체험한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포도주가 되실 것이다. 그리스도를 더 많이 체험할수록 우리는 더 '제정신을 잃게' 될 것이다. ... 여러분은 너무 즐거워서 여러분 자신을 절제할 수 없는 상태 심지어 기쁨으로 제정신을 잃어버린 상태를 겪어 본 적이 있는가? ... 우리는 이와 같이 주님으로 '제정신을 잃을수록' 더 좋다. 젊은 사람들만이 아니라 나이 든 형제자매들도 주님과 함께하는 내실에서 주님으로 '제정신을 잃어야' 한다. ...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속죄제물과 다른 기본 제물들로 매일 체험한다면, 이 모든 제물들이신 그리스도께서 포도주가 되실 것이고, 여러분을 극도로 즐겁고 기쁘게 하실 것이다. ... 그리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 체험한 모든 것은 우리의 새 포도주가 될 것이다(마 9:17).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체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격동하는 요소가 되어 뿔뿔이 기쁘게 한다. 이 누림 안에 계속 머물 때, 우리는 심지어 포도주와 하나 될 것이다.

술 취한 사람은 자신이 마시는 포도주와 하나가 된다. 포도주가 그의 온 존재를 적시어 그는 심지어 포도주의 모습과 향기를 지닌다. 우리는 이 사람이 포도주 자체가 되었다고 말할

수도 있다. 포도주로 적셔진 술 취한 사람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포도주가 될 때까지 그리스도로 적셔져야 한다. ...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 취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포도주가 되어 전제물이 될 자격을 갖고 전제물로 예비된다. 전제물은 단지 그리스도 자신만이 아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우리, 우리와 그리스도가 하나 될 때까지 우리를 적시시는 그리스도이다.

전제물은 단지 그리스도 자신만이 아니다. 그것은 포도주가 우리가 되기까지 우리를 적시신 그리스도이다. 마태복음 9 장 17 절의 포도주는 단지 그리스도였다. 그러나 바울은 “나는 이제 전제물로 부어지고 있으며”(딤후 4:6, 헬라이어 원문 참조)라고 말했다. 디모데후서 4 장 6 절에 나오는 포도주는 바울을 적시셔서 포도주로 만드신 마태복음 9 장 17 절의 그리스도이다. 이전에 이 포도주는 오직 그리스도였다. 그러나 이제 이 포도주는 우리가 되어, 우리는 전제물로서 부어질 수 있다. 이렇게 부어지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체험에 달려 있다. 여기 베넬인 하나님의 집안에서 우리는 전제물로 부어져야 한다. 전제물은 포도즙 틀에서 나온 포도주에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포도주를 마시는 우리의 체험에서 나온다. ... 하나님은 ... 오직 그리스도에 취하여 그들 자신이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포도주가 되는 정도까지, 포도주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들로만 완전히 만족하실 것이다. 이 포도주는 포도즙 틀에서 직접 나온 포도주가 아니다. 그것은 포도주이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포도주이신 그리스도로 적셔진 사람들에게서 간접적으로 나온 포도주이다.(창세기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89, 1206-1210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창세기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89

6/1 토요일

아침의 누림**빌 2:17**

17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의 희생 제물과 믿음의 봉사 위에 내가 전제물로 부어지더라도, 나는 기뻐하며,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합니다.

**딤후 4:6**

6 나는 이제 부어지고 있으며, 내가 떠날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빌 2:1-8**

1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격려나, 사랑의 어떤 위로나, 영의 어떤 교통이나, 어떤 부드러운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2 여러분은 같은 것을 생각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혼 안에서 연결되고, 한 가지 것을 생각하여, 나의 기쁨이 넘치도록 해 주십시오.  
3 어떤 일도 이기적인 야심으로 하지 말고, 헛된 영광을 위해 하지 말며, 오직 생각을 낮추어 서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4 각자 자기의 장점만 귀하게 여기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장점도 귀하게 여기십시오.  
5 여러분 안에 이 생각이 있도록 하십시오.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생각입니다.  
6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모습으로 존재하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하신 것을, 붙잡고 놓지 않아야 할 보배로 여기지 않으시고,  
7 오히려 자신을 비우셔서, 노예의 모습을 가지시어, 사람들과 같은 모양이 되셨으며,  
8 사람의 형태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순종하시어 죽기까지 하셨으며,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

만일 우리가 전제물에 관한 말씀들을 조각 그림 맞추기의 조각들처럼 함께 짜 맞추면, 우리는 전제물이 주로 교회를 위한 것임을 볼

것이다. 전제물에 관한 최초의 언급은 창세기 35 장에 있다. 성경에서 어떤 문제에 관한 최초의 언급은 그 문제에 관한 원칙을 결정한다. 전제물에 대한 최초의 언급은 하나님의 건축물과 관련된다. 그 이유는 전제물이 기둥 위에 부어졌기 때문이다.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에 나오는 전제물에 관해 읽을 때 우리에게 창세기 35 장의 기초가 없다면, 우리는 전제물이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한 것임을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전제물에 대한 첫 언급으로 돌아가야 하며, 그곳에서 우리는 전제물이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벤엘을 건축하기 위한 것임을 본다. 전제물에 관한 마지막 언급은 디모데후서 4 장 6 절에 있다. 이 절에 오는 전제물 역시 교회 곧 벤엘을 위한다. 그러므로 성경의 첫 언급부터 마지막 언급까지 전제물은 주로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한 것이다. 전제물은 겉보기에는 경배를 위한 것이지만, 사실상 하나님의 집을 위한 것이다. 즉 전제물은 하나님의 성전의 표지판인 기둥을 건축하기 위한 것이다.(창세기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89, 1212-1213 쪽)

오늘의 읽을 말씀

구약에 있는 예표를 기초로 하여 바울은 자신을 믿는 이들의 믿음의 희생 제물과 믿음의 봉사 위에 부어지는 전제물로 여기게 되었다. 여러 해 동안 바울은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적셔질 정도에까지 이르기 위해 계속 그리스도를 마시며 누리고 있었다. 결국 하늘에 속한 포도주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울의 존재는 포도주의 성분으로 조성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드린 희생 제물 위에 전제물로 부어지는 포도주로 여길 수 있었다.

빌립보서 2 장 17 절에서 ... '여러분의 믿음의 희생 제물과 믿음의 봉사'라는 말은 빌립보 믿는 이들의 믿음이 하나님께 드리진 희생 제물이었고,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의 봉사가 되었다는 것을 가리킨다. 바울의 사역의 산출물과 결과는 믿는 이들의 믿음이었다. 빌립보서 2 장 17 절에 있는 믿음은 모든 것을 포함한 것이며, 믿는 행위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서 믿음은 믿는 이들이 받아들이고 누린 모든 것을 포함하며, 궁극적으로는 믿는 이들 자신의 어떠한 것을 포함한다. 이러한 믿음은 바울의 사역의 결과이다. 바울이 사역한 결과로 믿는 이들은 모든 것을 포함한 믿음, 바울이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드린 믿음을 갖게 되었다.

전제물이 기본 제물을 필요로 한다는 구약의 원칙에 근거하여, 바울은 믿는 이들의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으로 조성된 믿음을, 자신을 전제물로 부을 수 있는 기본 제물로 여겼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틀림없이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매우 기뻐하셨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본 제물인 믿음을 보시고 이에 더해 전제물을 보실 때, 분명 얼마나 기뻐하셨겠는가! 믿는 이들 편에는 믿음이 있었고, 사도 편에는 전제물이 있었다. 얼마나 놀라운 광경인가! 바울이 그들 모두와 함께 기뻐한다고 말한 것은 당연한 것이다. 바울은 믿는 이들의 믿음의 희생 제물 위에 자신이 전제물로 (순교의) 피를 흘리는 것을 기뻐했다. 그는 기뻐했을 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과 함께 기뻐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은 그들과 기쁨을 나누는 것이다. 사도는 빌립보 사람들의 믿음을 위해 순교하면서, 그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었다. 이것은 사도가 그들을 축하하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한다. 나는 삼일 하나님 역시 그러한 기쁘고 즐거운 광경에서 바울과 함께 기뻐하고 계셨다고 확신한다.

전제물이 되려면 우리는 주님으로 채워지고 적셔져야 한다. 오직 이러한 방식으로만 우리는 전제물이 되게 하는 영적인 조성을 가질 수 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하늘에 속한 포도주로 조성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빌립보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4, 131-134 쪽)

추가로 읽을 말씀: 빌립보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50

**추가로 읽을 말씀**

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18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 - 복음서들과 사도행전, 메시지 286

**Churchwide Truth Pursuit of Hebrews (Week 15)**

**Level 1—Hebrews Sequential Reading**

Scripture Reading and Copying: Heb. 5:11-14  
Assigned Reading: *Life-study of Hebrews*, msg. 26

**Level 2—Hebrews Topical Study**

Crucial Point: Entering into God's Rest  
Scripture: Heb. 3:7-4:11  
Assigned Reading: *Life-study of Hebrews*, msgs. 17-20  
Supplemental Reading: None

Questions:

1. What is God's rest?
2. What does it mean to enter into God's rest?
3. Why must we enter into God's rest?
4. How do we enter into God's rest, as revealed through the Old and New Testaments?

**찬송: 635 (英) 우리 갈 길 보여 주는 (中:465)**

1 우리 갈 길 보여 주는 포도나무의 생명 거친 환경 고통 속에 자라나는 나무여 광야에서 제멋대로 자라는 야생초와- 전혀 다른 포도나무 우리 삶의 본이여.

9 가지들의 모든 풍성 따내고 짓밟으리 붉은 포도즙이 넘쳐 강처럼 흐르도록 좁 틀에서 그침 없이 흐르는 맑은 흐름- 달콤하고 풍성하리 온 땅 기쁘게 하리.

10 모든 것을 다 주고서 스산한 모습으로 헤아릴 수 없는 밤에 너는 들어가누나 아무도 포도주 대가 네게 주지 않는데- 년 더 벗겨지고 잘려 혈벗은 채 서 있다.

11 겨울 동안 추위 속에 떠는 사람들에게 슬픔 고통 근심 속에 압박받는 이에게 달콤함과 따듯함을 포도주는 주누나- 그러나 너 혼자 있다 얼음 속 눈 속에서.

15 얻은 것에 있지 않고 잃은 것에 있다네 마신 것에 있지 않고 쏟은 것에 있다네 여기에서 나타나네 생명의 참된 분량- 깊은 죽음 겪은 사람 가장 큰 것 얻는다.

16 자아 처리 받은 이가 최상의 주 얻으며 고통 속에 있는 사람 위로해 줄 수 있네 십자가를 못 누리면 소리 나는 팽과리- 자기 생명 미워할 때 초월 기쁨 누리네

**6/2 주일**

**아침의 누림**

민 28:7-10

7 그에 딸린 전제물은 어린양 한 마리에 포도주 사분의 일 힌이어야 한다. 너희는 성소에서 여호와에게 독한 술을 전제물로 부어 바쳐야 한다.

8 어스름한 저녁에는 다른 한 마리를 바쳐야 한다. 너희는 아침에 한 것처럼 그것을 소제물과 그에 딸린 전제물과 함께 화제물 곧 여호와를 만족시키는 향기로 바쳐야 한다.'

9 '안식일에는 흠 없는 일 년 된 어린 숫양 두 마리와,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십분의 이 에바의 소제물과, 그에 딸린 전제물을 함께 바쳐야 한다.

10 이것이 매일의 번제물과 그에 딸린 전제물과는 별도로 안식일마다 바치는 번제물이다.'

고후 8:9

9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부유하셨지만 여러분을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는데, 이것은 그분께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고후 4:10-12

10 예수님을 죽게 한 것을 우리가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도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11 이것은 살아 있는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으로써, 예수님의 생명도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12 그러므로 죽음은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생명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합니다.